

고유정 살인사건 뒷북 친 제주경찰

사건 초기 “제주서 시신유기 가능성 낮다”... 한달 후 쓰레기매립장 수색

유족이 매립장 수색 요구 수색 통해 뼈 20여점 발견 경찰, 국과수에 감정 의뢰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36)이 시신을 제주에 유기했을 가능성이 낮다고 밝힌 경찰이 결국 매립장 발굴에 나섰다. 쓰레기봉투가 버려진 지 한달 만이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오후 제주시 구좌읍 동북리 쓰레기매립장에서 방범순찰대와 형사 등 75명과 수색견 2마리를 투입해 수색 작업을 벌였다. 이는 고씨가 지난 5월 27일 범행 장소 인근 클린하우스 2곳에 쓰레기를 버리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기 때문이다.

이날 수색이 이뤄진 구역은 6개의 매립지 가운데 ‘제1구역’으로 5월 27~31일 제주시지역에서 수거된 쓰레기 약 120t이 매립된 곳이다. 하지만 쓰레기는 소각은 물론 소각돼 나온 가루를 돌처럼 만드는 ‘고화처리’까지 이뤄진 상태였다.

굴착기로 땅을 파내자 하얀 연기와 함께 악취를 내뿜으며 쓰레기가 모습을 드러냈다. 이 쓰레기를 경찰 75명과 수색견 2마리가 하나하나 확인하는 방식으로 수색이 진행됐다.

수색 결과 뼈로 추정되는 물체 20여점이 발견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경찰이 28일 수색견을 투입, 동북리 쓰레기매립장에서 살해된 고유정의 전 남편 흔적을 찾고 있다. 송은범기자

에 감정을 의뢰했다.

이날 수색은 피해자 유족이 지난 달 26일 고희범 제주시장과 면담 하는 과정에서 매립장 수색을 요구했고, 다음날 고 시장이 직접 매립장을 찾아 발굴이 가능하다는 보고를 받으면서 작업이 이뤄졌다.

고씨는 5월 25일 오후 8시에서 9시16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 소재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모(36)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이틀간 시신을 훼손했다. 이후 펜션을 나온 5월 27일 인

근 클린하우스 2곳에 쓰레기봉투 4개를 버렸다.

경찰은 5월 27일 강씨 유족으로부터 실종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 나흘 뒤인 30일 고씨가 해당 클린하우스에서 뭔가 담겨있는 쓰레기봉투를 버리는 CCTV를 확보했다. 이에 다음날 곧바로 매립장을 찾았지만 이미 소각이 이뤄진 뒤였다.

이에 대해 경찰은 고씨가 제주에 시신을 유기했을 가능성이 낮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고씨가 버린

해당 쓰레기봉투에 어떤 것이 담겨졌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씨는 시신을 바다와 가족 소유의 김포시 아파트에 유기했고, 제주에는 버리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면서도 “만일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색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6월 14일부터 19일 사이 김포시 등에서 발견된 뼈는 모두 동물의 것으로 확인됐다. 송은범기자

폭우 온다더니?... 주말 장맛비 ‘짙끔’ 최대 300mm 이상 예보됐지만 제주도 2mm 그쳐

1일 5mm 비 내릴 듯

최대 300mm 이상의 폭우가 내린다면 기상청 예보와 달리 제주의 주말은 평온한 날씨가 이어졌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하루 지점별 누적 강수량을 보면 제주 2mm, 서귀포 8mm, 신례 17mm, 한라산 성판악 22.5mm, 윗세오름 32.5mm, 삼각봉 60mm 등이다.

당초 기상청은 이날 오전부터 산지를 중심으로 최대 300mm 이상의 많은 비를 예상했지만, 정작 산지에도 예상 강수량을 크게 밑돌았다.

기상청은 “저기압에 동반된 장마 전선이 당초 예상보다 활성화되지

못하고 빠르게 빠져나가면서, 적은 강수량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7월 1일은 오후 한때 산지와 남부,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5mm 미만의 비가 오겠으며, 2일부터는 장마전선의 영향에서 벗어나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다. 다만 1일 비가 왔던 지역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면서 가시거리가 짧고 미끄러운 도로가 많을 것으로 보여 교통안전에 유의해야겠다.

1일 아침 최저기온은 21~22℃, 낮 최고기온은 25~26℃로 평년과 비슷하겠으며 2일도 아침 최저기온은 20~22℃, 낮 최고기온은 25~26℃로 전망됐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여행상품 대금 1억여원 가로챈 40대 실형

제주에서 1억여원 넘는 여행상품 대금을 받아 가로챈 40대 여행사 운영자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행사 대표 A(49)씨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8월 16일 여행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패키지상품, 할인항공권에 대한 광고를 보고 예약한 김모(38·여)씨에게 “왕복항공권을 구입해야 하니 항공비 전액

인 현금 83만5950원을 입금하라”고 말한 뒤 돈만 가로챈 등 총 61회에 걸쳐 1억387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여행사는 자본금이 모두 잠식된 상태였고, 누적된 미결제 대금 및 회사 운영 관련 채무가 1억원 상당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3년에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금액 대부분을 변제할 능력이 없는 점, 많은 사람들의 여행기회를 망치게 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송은범기자

승용차 상가 출입구 돌진



지난 28일 오후 3시8분쯤 서귀포시 서귀동 소재 모 상가 출입구(서터문)로 승용차가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인 강모(69)씨와 동승자 부모(70)씨 등 4명이 다쳐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태윤기자

도, 야영장시설 16곳 안전점검 해보니...

소화기 미비치 등 ‘안전 불감증’ 심각

88%가 안전에 소홀 전기·가스 불량도 많아

본격적인 캠핑시즌을 맞은 가운데 제주 도내 야영장 16곳 중 14곳(87.5%)에서 안전에 소홀한 사항이 확인돼 안전관리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17~27일 도내 일반 야영장 7곳과 자동차 야영장 9곳 등 총 16곳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시행했다고 30일 밝혔다.

도내 등록된 야영장시설은 총 43곳이지만, 제주도는 16곳을 표본으로 선별하고 행정시와 합동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야영장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야영장 16곳 중 14곳에서 총 21건의 미흡사항이 확인, 해당 사항을 행정시 관계부서에 통보해 시정 조치를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소화기 비치 불량 3건 ▷글램핑과 카라반 중심에 따른 변경등록 미흡 등 3건 ▷안전정보

시판 미 부착 9건 ▷손전등 미 비치 2건 ▷전기관련 3건 ▷가스관련 1건 등이다.

또 비상용 발전기 또는 배터리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돼 행정시에 야영장 안전관리 강화를 요구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야영시설을 이용하는 도민 및 관광객의 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고, 이번에 확인된 미흡사항은 향후 야영시설 안전관리 대책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소진기자

구좌읍 양식장 화재



30일 오전 0시9분쯤 제주도 구좌읍 종달리 한 양식장에서 불이 나 20여 분만에 진화됐다.

이 화재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양식장 분전반 3대가 소실되는 등 11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노후된 분전반 내부에 습기와 먼지 등이 쌓이면서 전기적 요인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김현석기자

경찰 간부, 아내에 행패

현지 제주 경찰 간부가 술을 마시고 별거 중인 아내에게 행패를 부리다 체포됐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로 제주 동부경찰서 소속 A(47) 경감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A 경감은 이날 0시30분쯤 경기도 고양시 부인 B(44)씨의 집에서 B씨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고 문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 경감은 27일 밤 10시46분쯤 B씨 집에서 술을 마시다 처남과 다툼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분리조치됐다. 그러나 28일 밤 0시6분쯤 다시 찾아와 행패를 부렸고 부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김현석기자

진정한 흙의 보약 “페르카비료” 120년의 역사 (독일수입)

한번의 시비로 비료와 흙과 수분반응에 의한 농약성분 뿌리혹병, 잡초경감, 균핵병, 회색곰팡이병, 흑색썩음균핵병, 역병, 모잘룩병, 시들음병, 달팽이사멸, 각따귀, 날파리류, 곰팡이병살균, 방제

페르카의 제반효과

- 완효적 질소비 효과
- 선충 밀도의 저하
- 토양소독 효과
- 유기물의 부숙 촉진
- 식효효과
- 토양미생물 활성화
- 토양의 비옥화
- 토양공포미 살균 방제효과
- 잡초의 경감
- 가축의 기생충 방제
- 토양 미생물 활성화

사용 기준 25K - 1포 (100~400평)사용 **취급 품목** 4중복비, 유기질비료(친환경제품), 1등급가공발효계분퇴비, 유행비료 **관주 염분 시비용** 맥반석, 게르마늄, 황금수, 흙향기

직원구함 **비료판매 유 경험자년 4천이상 보장, PC가능자**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조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

마늘·양파·양배추 농가에게 알립니다

하하농법이 해결이다!!

마늘

- **금년도 마늘** 평당 10kg 생산능력이 있어 화제! → 대정읍 하모리
- 김OO씨는 2,400평에 **하하농법**으로 재배한 마늘이 24,000kg 생산되어 동네에서 소문이 자자하다는데
- 밀거름 : 이노페스 + 복비(21-17-17)
- 추 비 : 히토락F + 복비
- 비 대 : 히토락F
- ※ 이노페스를 사용시 유기질 비료 또는 퇴비, 토양개량제(소석회 또는 생석회) 쓸 필요가 없습니다.

양파·양배추

- **표종을 정식전에 하하농법인** 브이(V)패스로 침지 또는 침전 후 정식 → 정식후 뿌리가 내리면 브이(V)패스로 염면시비 해준다.
- 브이(V)패스 : 500ml 1병 12.5말로 희석해준다
- 세균성 바이러스 예방 및 감염병지에 효과가 있다. (양배추 뿌리혹병, 마늘 잎지 썩음병, 감자 시들음병 등등..)
- ※ 대정읍 신도에서는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다.

올 농사도 하하농법으로 하하 웃는 농민과 함께하는

곰팡이감귤유통상사

부영인 H·P 010-2633-5349